

### 미운털 이삭, 눈엣가시 이삭

이삭도 죽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백 퍼센트 거짓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었다. 언제까지 감추고 살 수는 없었다. 기근을 피해 그랄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 창세기 26:8**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동일인물인지 왕위를 계승한 2 대, 혹은 3 대 아비멜렉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그의 아들이나 손자일 확률이 높다. 어쨌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를 데려왔다가 집안 모든 여인의 출산이 막힌 사건은 아비멜렉 일족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재의 아비멜렉이 아들이나 손자 아비멜렉이라면, 이 사람은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다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사람이다. 아비멜렉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지 위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한다.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 창세기 26:11**

이쯤되면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힌 썸이고 모든 사람에게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가 이삭이다. 백성들은 왕명이 무서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왕은 하나님이 무서워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평화의 언약도 여전히 유효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랄 사람들에게 더 곤란한 일이 생겼다.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땅을 갈고 종자를 심었으니 이 미운 사람이 언제까지 여기 머무를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 창세기 26:12

게다가 농사가 아주 잘 됐다. 저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겪어봐서 아는 일이지만 하는 일 마다 잘 된다. 가축도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되었고 종이 많아도 '심히' 많다. 처음 그랄로 들어올 때는 흉년을 피해 잠시 머무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이 집안 내력인 나그네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평평거리는 부자가 됐다. 그랄 땅 사람들은 흉년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삭은 계속 부유해지고 있다.

### 깨어진 언약

원주민 입장에서 이삭을 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밭지 않을 수가 없다. 점점 부자가 되어간다. 종도 심히 많아졌다. 흉년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남의 종이 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이삭이 재산을 모으고 새로 종들을 산 곳은 그랄이다. 이웃과 친족이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의 종이 되는 것이 즐거울리가 없다. 그렇다고 함부로 해코지도 못한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다. 우물이라도 메워버리는 수 밖에. 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물을 먹일 가축이 많은 이상 우물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떠날 수 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이쯤되자 보다 못한 아비멜렉이 나섰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다.

##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 창세기 26:16

과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언약을 맺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손자 대에 이르도록 ‘거짓되이 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우물에 관한 분쟁을 정리하기를 원했다. 언약이 맺어졌고 자손 대대로 서로가 후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깨졌다.

이삭은 거짓되이 행했고 아비멜렉의 백성은 ‘맹세의 우물’을 메워버렸다. 더 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삭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의 언약이고 자신이 직접 맺은 것이 아니라해도 지켜야 했다. 이삭이 물려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도 함께 물려 받은 것이다.

### 잘못된 적용, 승리주의

이 사건을 보며 잘못된 적용을 할까 염려된다.

흉년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 세상 사람 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되면 좋겠다? 이삭의 행동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잘 되고 영웅적이고 독보적인 업적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고,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승리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한 사람 잘 되고 힘 있어서 모두가 믿는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낮아지고 죽어서 타인이 유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알의 밀알을 기억하자. 이삭의 실수,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 아닌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다.